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 갖고 시작



▲ 강광파 상임이사

- 1965.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
- 1983. 소비자시민모임 결성
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이사
축산물 등급판정소 이사
한국식품위생학회 이사
- 현재.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식품위생·안전 심의위원
농산물품질관리 농소장 관리위원장
가공산업 발전 심의위원
축산물 심의위원

아이들의 엄마로써 소비자운동 관심

강광파 이사는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면서 식품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식품첨가제로 사용하는 적색2호(색소)를 피임약과 함께 먹었을 경우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적색2호는 당시 딸기잼, 주스, 소세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의 발색제로 무방비로 첨가되고 있었다. 강광파 이사는 아이들이 입맛이 없을 때 끼니를 챙기기 위해 가끔씩 미국에서 생산되던 스펀지를 먹었지만 당시 스펀지에도 적색2호가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약이나 다름없는 식품을 아이에게 먹인 꼴 이었다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가 되다보니 식품·생필품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을 위해 1979년부터 소비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본격적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강광파 이사를 비롯한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등 같은 뜻을 가진 3~4명이 모여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곧 내 가족, 우리 국민을 챙기는 길이라는 사명감으로 26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소시모 활동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족된 단체이다.

주로 소비자 고발상담, 조사연구, 캠페인 등을 통해 새 정책개발에 힘쓰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의 안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당국에 위해상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건의해 오면서, 발암색소 생산 금지, 위해 약품과 위해 농약 성분의 금지 및 사용 제한, 어린이 영양제의 사카린 사용 금지, 불량 벌꿀의 제품 수거 등 위해 상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왔다.

그간 소시모의 활동으로 적색2호 첨가식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현재 적색2호 첨가식품은 전혀 볼 수 없게 된 것은 소시모의 수년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소시모는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를 주관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수 축산물브랜드 선정과정은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품질, 등급, 브랜드, 위생·안전성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

주관단체인 소시모는 지난 2004년부터 우수

한 축산물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우수한 축산물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정해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육계 3개의 브랜드가 선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소비자가 원하는 것

강광과 이사는 “소비자는 식품에 대해 100% 신뢰하고 구매하진 않는다. 심지어 계란에 마킹된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이 맞는 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지만, 깨보면 계란 신선도가 균일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다. 이 같은 문제는 아무리 좋은 품질의 계란을 생산했다라도 이후의 유통과정을 비롯한 판매장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상의 품질을 공급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또한 “녹차란, 홍삼란, 키토란 등 각종 브랜드 계란이 생산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계란이 일반란과 비교해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길 바라며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등급판정의 점유율을 높여 좋은 품질의 계란을 먹도록 마련해야 한다.”며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로 하다며 특히나 계절에 큰 영향을 받는 계란의 비수기때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공식품의 개발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 운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